

당신 안의 부처가 녹슬고 있습니다

청운 스님의 도담 '나를 찾아가는 길'

〈道談〉



남약회양 스님이 육조혜능 선사를 찾았을 때이다. 육조혜능 선사가 물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남약회양 스님은 말문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스님은 그 길로 돌아가 8년을 용맹정진했다. 다시 육조혜능 선사를 찾았을 때 선사는 똑같은 질문을 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남약회양 스님이 답했다.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선사가 되물었다. "가히 닦아서 증득할 수 있는 것인가?" "닦아 증득함은 없지 않으나 물들지 않습니다."

'한 물건도 없애 물들일 수 없는' 마음으로 5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금강경>을 독송해 온 한 거사가 있었다. 속가 생활을 통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그는 사업체를 일구면서 성취감도 맛봤지만 가슴 한 켠의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진제 선사(대구 동화사 조실) 등 제방의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수행해 온 거사가 어느 날 태고 사 도전 스님을 만났다. 거사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출가를 했다. 스님이 된 거사는 용맹정진을 통해 갈증을 씻어냈다. 법열이라 불리는 그 청량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다. 그는 그 환희를 만인과 나누고 싶었다. 그 환희를 책에 담았다. 수행에세이 <나를 찾아가는 길>은 광명 선제사 청운 스님(사진)이 펴낸 책이다. 스님은 먼저 펴낸 <길을 묻는 나그네에게> <육조혜능과 금강경오가해>(우리출판사 刊)를 통해서도 부처님 정법과 올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해왔다. 대중과 법을 나누고 싶은 스님의 간절한 마음은 <나를 찾아가는 길> 책머리에서부터 드러난다.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고 한 소식 접하신 불자님께서 이 책과 팔만사천경을 하나로 묶어 한 입에 삼켜 저 넓은 동해바다 한가운데에 토해 버리거나, 이 책을 불쏘시개로 삼아 일체 경을 허공에 불태워 버리시고 바른 하나의 정법수행으로 견성성불하시길 기원합니다." 청운 스님은 "내가 곧 부처"라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사람들이 자기 밖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밖에서만 답을 구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어 정작 내 안의 부처가 녹슬는 줄 모른다"며 "내가 곧 부처"라는 믿음을 시작으로 죽은 부처를 산 부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청운 스님은 '성불은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볼 줄 아는 것'이라며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등 불·보살 명호를 부를 때에도 내가 아미타불과 하나, 관세음보살이 바로 '나'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스님은 "대표적인 화두인 '이렇고'에 모든 세상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모르고자 하는 것을 알려는 것이 화두이지만 찾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 화두이다"라고도 말한다. 청운 스님은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한 무리요, 온누리는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며 "한지불한 생명 한뿌리 윤리를 알면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책에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아는 것이 화두이며 수행이다"라는 스님의 수행지론이 조목조목 정리돼 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청운 스님 지음 | 불교시대사 | 1만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5~2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법정 스님 선묵	법정	다래헌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행복 비유로 읽는 개량으로 읽는	미산 외	운주사
5	초기불교 이해	각목	초기불전연구원
6	건설 강이 어디 있더라	대행	한마음선원
7	허공법문	김기추	고려원북스
8	굿바이 티베트	M. 블루멘크론	하얀연꽃
9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10	사백의 대화	지허	도피안사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순주사 02)3672-7181~5

윤남진 REVIEW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 책은 인간과 문화의 뿌리에 대해 신화학, 심리학, 철학을 종합적으로 결합해 해석한 책이다. 이야기의 소재는 영웅의 탄생과 각성, 귀환과 홍익(弘益)의 여정을 담은 갖가지 신화들이다. 수메르, 이집트, 그리스 로마, 아일랜드, 게르만, 마우리족, 인디언 등 세계의 여러 지역, 여러 민족이나 종족의 신화를 일관된 이야기 구조(패턴)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경, 성경, 코란, 베다 등 오늘날 주요 종교의 경전에 기술되어 있는 신화적 상징들도 원시부족의 신화들과 구별을 두지 않고 순수한 이야기 구조로서만 비교되고 다루어진다. 저자가 염두에 두는 것은 거의 모든 신화들에 공통된 이야기 구조(패턴)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유사한 상징들에 대한 의미해석인 것으로 보

인다. 여기서는 잠자는 숲 속의 미녀와 석가모니의 출가와 성도, 모세의 출애굽,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동일한 이야기 구조(패턴)로 설명된다. 일체의 치장을 제거하고 오직 뼈(골격)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다.

약 500쪽에 달하는 이 책에서 사례로 인용한 수많은 신화들에 대해 나는 이 지면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요약해 보고할 재간이 없다. 다만 독자들을 위해 신화에 나타난 공통된 영웅 이야기의 구조(패턴)에 대해 부족하나마 한번 요약해 볼까한다. 그럼 독자들은 붓나 예수, 모세

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영웅 이야기의 출발은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비춘다. 그 평범한 일상에 돌연 소명을 알리는 전령관이 나타난다. 신들은 신타르타 태자가 정각에 이를 때가 되었음을 알고 사문유관을 체현케 하는 전령관 역할을 한다. 어떤 영웅은 소명을 즉각 깨닫고는 길을 나서지만(출가), 어떤 영웅은 타성이나 힘에 겨움 또는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잠시 소명을 거부하고자 애쓰기도 한다.

모험에의 길로 출발한 영웅에게는 권능이 결여되어 있다. 주인공은 권능(열쇠)이 있어야 비

만 근원적 어둠,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암흑에 빠진다. 출가한 사문 고타마는 당대의 최고 스승들을 뛰어 넘었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준의 고행을 하였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 그림자는 오직 그 자신이 빛으로 화해야만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깨달은 영웅은 가능성, 한줄기 빛을 본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사생결단의 정면대결을 결심한다. 유유 죽으로 기운을 차린 고타마는 길상초를 깔고 보리수 아래 앉는다. 이 나무는 우주수(宇宙樹) 즉 우주의 중심인 나무다. 고타마는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지

않고 전령관(신들)의 간청을 계기로 귀환을 결심한다. 그리고 마침내 귀환하여 홍익을 베풀는다. 이것이 신화에 나타난 영웅들의 공통된 여정(모험의 패턴)이다.

뒤트켄(종교학)은 신화를 '개인을 집단에 귀속시키기 위한 비유적 가르침의 보고'라고 했고, 융(심리학)은 '인간의 심성 깊 곳에 내재된 원형적 총동의 징후인 집단의 꿈'이라고 정의했다. 신화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영웅심(大雄心)을 흔들며 깨우는 이야기다.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종교는 내면적 집착과 성찰의 다른 쪽 낯개인 홍익의 열정(菩薩道)이라는 여의주를 획득한다. 이로써 종교는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 사회와 통합되고, 존재와 죽음을 넘어서는 열정의 상징으로서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원의 대웅전(大雄殿)을 다시 보자. 그곳에 고요하고 텅텅 빈 경배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을 깨우는 영웅이 있다고 다시 바라보자.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왜 원효를 그토록 사랑했는가? 그것은 아마도 그의 학식과 높은 도업에 대한 흠모보다 그가 저자거리로의 성공적인 귀환을 실현한 진정한 영웅 이야기의 전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리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인간 무의식 속 영웅을 흔들며 깨우는 이야기

의 일대기를 상기해 보라. 아니면 헤라클레스나 건국신화 또는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이들의 모험의 여정을 따라가 보자.

우선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영웅의 여정의 핵이 되는 패턴부터 알고 넘어가자. 영웅의 모험은 세계로부터의 분리(출발), 힘의 원천에 대한 통찰, 그리고 황홀한 귀환의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저자는 이 핵이 되는 3개의 이야기 패턴을 출발(분리), 시련과 입문의 성공, 화귀와 사회와의 재통합이라는 제목의 3부 17장으로 구성해 그 구조

를 로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때 초자연적 조력자가 나타난다. 노파나 노인은 영웅에게 호부(부적, 열쇠)를 선사하고 주인공은 첫 관문을 통과한다. 저자는 본생담의 오무기태자(五武器太子) 이야기로 관문 통과와 과정을 설명한다. 태자는 스승에게서 전수 받은 다섯 무기로는 도깨비를 물리치지 못한다. 다섯 무기는 오감에 집착하고 있는 세계의 상징이다. 태자는 여섯 번째 무기인 천상의 벼락 즉 지혜를 통해 조복 받는다.

영웅은 첫 관문을 통과해 목적을 향해 전진하지

않겠다고 정면대결을 결심한다. 고타마는 마라와의 정면대결에서 승리하고 스스로 빛이 된다. 그는 깨달은 이, 붓다, '위대한 영웅(大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영웅은 귀환하여 홍익(弘益)을 실현하지 않으면 진정한 영웅이 되지 못한다. 영웅은 귀환을 가로막는 장애를 넘어야 한다. 처음엔 내 깨달음을 이해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며 귀환을 주저한다. 그러나 영웅은 귀환으로 예상되는 사회와의 불화-기존의 관습과 타성, 문화 등과의 갈등을 예견하고 귀환을 주저하지만, 처음 소명을 전담했던

나를 찾아가는



「나를 찾아가는 길」

한 지붕 · 한 생명 · 한 부처
청운스님 지음 | 불교시대사 | 10,000원

» 청운 스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충남 금산군 대둔산 태고사에 계신 경허 대선사의 법제자인 수월(1855~1928)스님의 법손이신 도전 큰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였으며, 현 조계종 원로의원이시며 대중사이신 명선 스님에게 수계하였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 선제사에 주석하고 있다. 저서로 <길을 묻는 나그네에게>(길을 묻는 나그네에게 II)(육조혜능과 금강경오가해) 등이 있다.

初發心時便正覺 (초발심시변정각)

"처음 마음을 낼 때(발심할 때)가 곧 깨달음이다. 이말은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두는 그 순간이 곧 성불이라는 것이다."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말씀은 기도할 때 자기 성품자리에 마음을 두고 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正見(정견)도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예로 "이렇고"하는 자리가 반야공성(般若空性)을 일러주는 -구로서 부처님 마음하고 딱 합쳐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 일체 제불즉석(가여래, 관음, 지장, 아미타불이 계신 곳이다.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곳이고 불가사의한 영험과 기적이 일어나며 아프면 자동적으로 약사여래가 나오는 곳이다. 모든 기도란 부처의 반야지혜작용을 살려 우리가 쓰지 않아 녹슬어 있는 자성불을 생불(生佛)로 만들어 작용하게 하는 것이며 이 반야지혜작용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반야지혜가 우주법계의 만물 만생을 창조는 본체이며 반야지혜인 우주와 내가 하나로 연기된 것이 無我이다.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고 한 소식 접하신 불자님께서 이 책과 팔만사천 경을 하나로 묶어 한 입에 삼켜 저 넓은 동해바다 한가운데에 토해 버리거나 이 책을 불쏘시개로 삼아 일체 경을 허공에 불태워 버리시고 바른 하나의 정법 수행으로 견성성불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은이 청운스님 합장 010-4399-4326

